

요한복음의 상징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요한복음 6:35

요한복음의 상징은

자연이나 인간의 경험에서 나온 형상적 언어를 사용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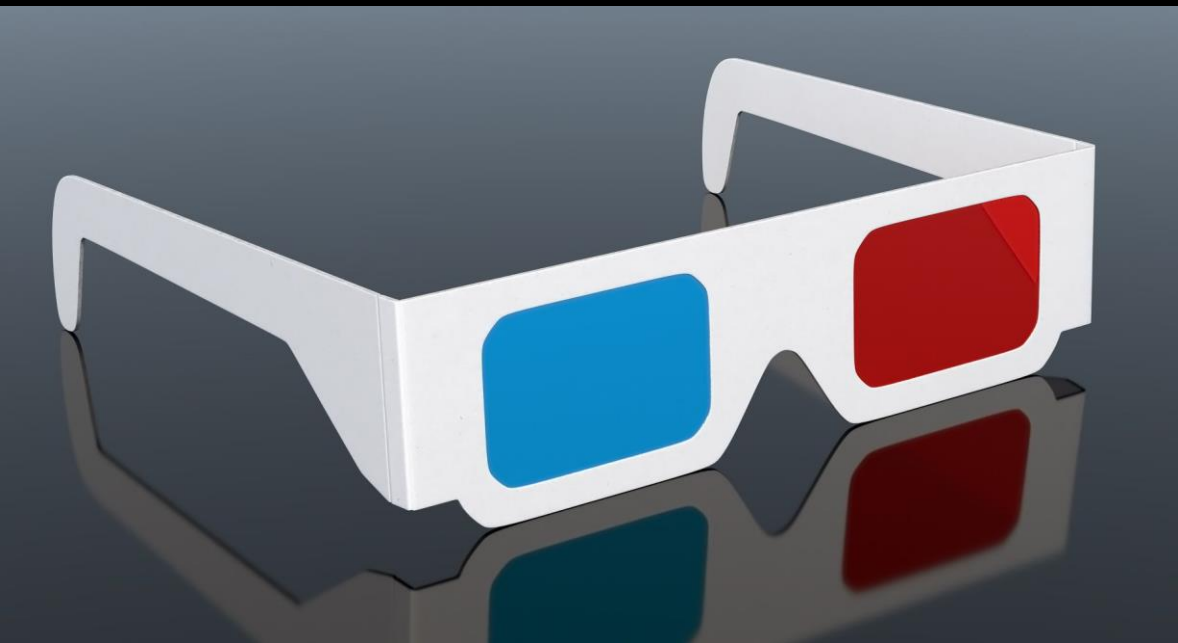
초월의 의미를 전달한다.

-폴 틸리히

음식이 인간의 생명의 유지에 필수적이다.

바로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적 정신적 공허를 예수님으로부터 채우게 된다.



마치 입체안경처럼  
물질적인 빵과 영적인 빵을  
동시에 보게 만드는 것이 상징

예컨대 프라 안젤리코의 수태고지와 같은 성화가

상징들을 통해서

풍요로운 의미를 전달하는 것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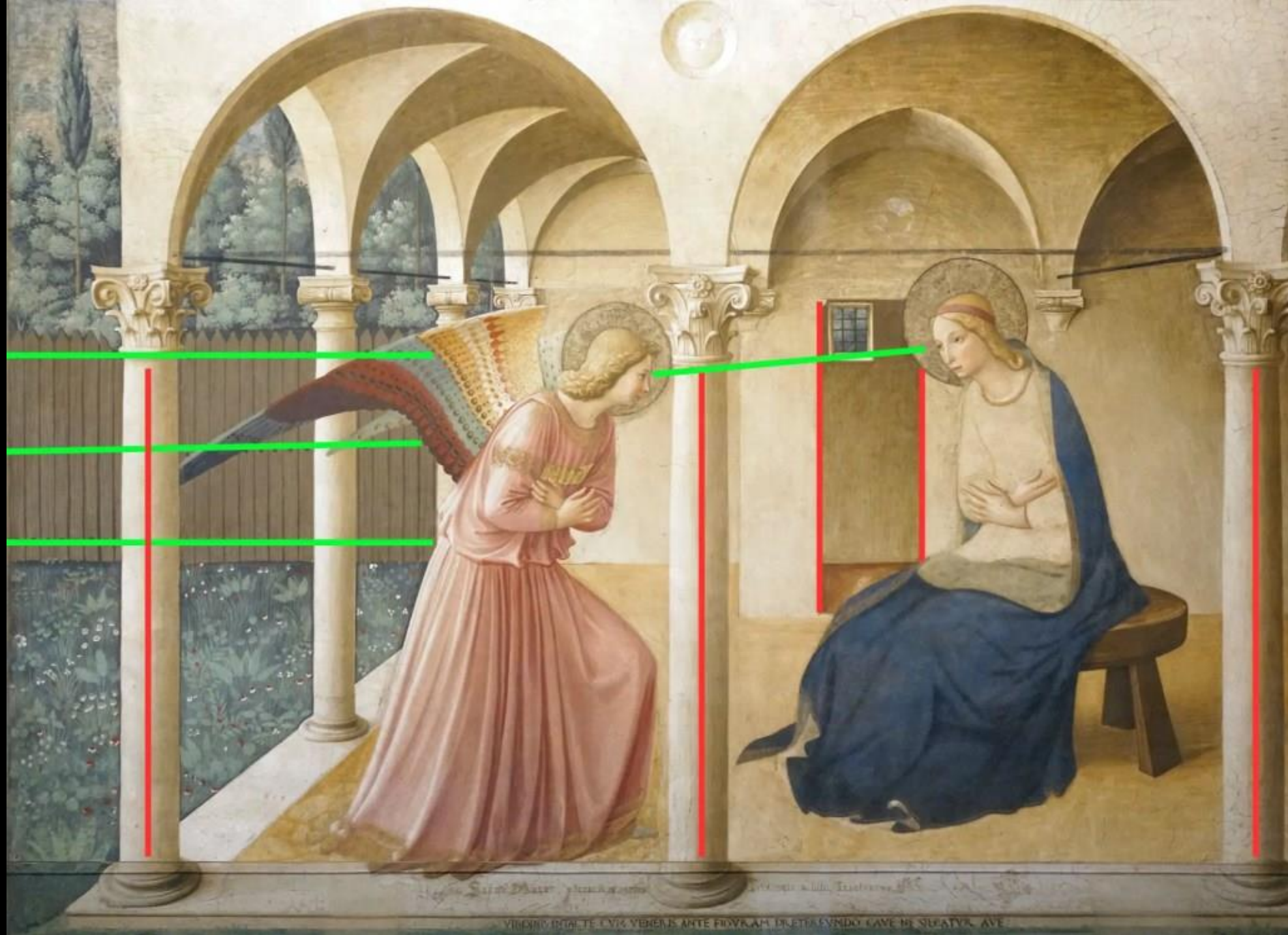


Salus Mater plebis gratia  
Veneris ante figuram pretervindo cave ne siveatvr ave  
VIRGINIS INTACTE CVM VENERIS ANTE FIGVRAM PRETERVINDO CAVE NE SIVEATVR AVE











Illegible text, likely a rubric or artist's signature.

VIRGINI IN HAC TE CUM VENERIS ANTE FRONTEM INCLINANDO GEMERE SI QUATOR AVE



요한복음의 상징은 장식같은 것이 아니라  
요한에게 종교적 진리인 구원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요한복음의 상징은  
천상과 지상 사이의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한다.

-도로시 리

요한복음의 여러 상징들

# 1. 감각 상징

‘보다’와 ‘듣다’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12:45)

“세상 창조 이전부터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시어  
저에게 주신 영광을 그들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17:24)

본다는 것의 이중 의미

눈으로 보기와 믿음으로 보기

신앙의 눈 oculus fidei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의 목소리를 **듣는** 때가 온다.” (5:28)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10:3)

듣는 것 역시 물리적인 듣기와 영적인 듣기의 두가지 행위

이 상징이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된 것이 9장의 소경 치유의 기적

## 태어나면서 눈먼 사람

땅에 침을 뱉고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 사람의 눈에 바름

메시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바리사이들

“그분이 제 눈을 뜨게 해 주셨는데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에서 오셨는지 모르신다니,

그것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보지 못하는 이들은 보고, 보는 이들은 눈먼 자가 된다.”

9장의 소경 치유에는 두가지 상징이 사용된다.

창조의 상징적 행위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다(창세기 2:7))

본다는 것의 상징

## 2. 관계 상징

가족, 친구들 사이의 우정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1:12)

“누구든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3:3)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15:15)

관계 상징은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가 예수님을 통하여  
얼마나 깊어졌는가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설명해준다.

또한 우리가 하느님, 예수님과 맺고 있는 **관계**를  
**가장 익숙한 언어**로 감동적으로 말해준다.

인간의 영역이 초월의 영역을 이해하는데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해준다.



### 3. 상징으로서의 인물

니코데모와 사마리아 여인

마르타와 마리아

## 니코데모의 맥락

“파스카 축제 때에 예수님께서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이 그분께서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다.” (2:23-24)

니코데모는 표징을 보고 믿은 이들

하지만 예수님의 상징언어를 이해하는데 실패

“누구든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미 늙은 사람이 어떻게 또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3)

니코데모의 이해의 실패는  
곧 그의 신앙의 실패로 나아간다.  
물론 그는 불신과 완전한 신앙 사이의 인물

그와 반대되는 인물이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여인 장면의 의도적인 배치

바로 니코데모 장면 바로 뒤

불가피하게 니코데모와 대조되는 사마리아 여인

“선생님은 어떻게 유대 사람이시면서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마실 물을 청하십니까?”

“선생님, 이제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시군요.”

“저는 그리스도라고도 하는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것을 압니다.”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 사마리아 여인은 복합적 인물

니코데모와 같이 이해의 실패 뿐만 아니라 애초부터 적대적

하지만 대화를 통해서 하나씩 마음이 풀어지는 체험

즉 믿음이 조금씩 생겨나고 뿐만 아니라 깊어지는 인물

예수님 본인이 자신의 신원을 확인해주는 유일한 인물

니코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은

각각 유대계 그리스도인과 비유대계 그리스도인을 상징하게 된다.

독자들은 니코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자신을 보게 되고

자신과 동일하게 되며 자신의 영적 상태를 확인한다.

인물들 자체가 상징이 된다.



반면 마리아와 마르타는 신앙인의 두가지 태도를 상징한다.

예수님을 맞으러 나간 마르타와 그냥 집에 앉아 있는 마리아  
대화와 말에 초점을 맞춘 마르타와  
울면서 예수님과 함께 가는 마리아(11장)

신앙의 본질적인 응답의 대조군 형성

주도적이며 적극적인 신앙 대 내성적이며 조용한 신앙

대화적인 신앙 대 활동적인 신앙

루카복음의 마르타 마리아 상징과는 좀 다르다.

이는 요한복음 공동체의 독특한 마리아 마리아 상징



014

키아츠 기독교 영성 선집

## 무지의 구름

저자 무명의 그리스도인

번역 전경미

에필로그 김재현

키아츠  
KIATS

\*루카복음의 마리아 마르타

마리아는 **관상적 삶**을 상징하고 관상적 삶을 사는 이들에게 표본이 된다.

마르타는 **활동적 삶**을 상징하고 활동적인 이들이 본을 삼는다.”

-무지의 구름

니코데모와 사마리아 여인

마르타와 마리아

모두 신앙의 측면들을 상징하는 **사람 상징(상징적 인물)**이 된다.

## 4. 아버지와 아들

매우 본질적인 상징이며 삼위일체의 토대 중의 하나

한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1:1)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아드님으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 (1:14)

아버지와 아들 상징은

말씀과 하느님의 관계를 인간의 기본적인 관계언어로

그나마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준다.

아버지의 신성한 본질을 나누어받은 아들의 상징으로.



아버지 아들 상징은 **하느님과 예수님 관계를**

이해하는 다리 역할을 하면서

부차적으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하느님의 아이들로 이해하는**

상징 역할을 하기도 한다.

‘Filiation 자식이 되기’를 통해서.

## 5. 육/사람

육이라는 상징은 육화의 맥락에서만 의미가 있는 본질적 상징

말씀이 **사람(sarx;육)**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1:14)

말씀이 물질적 육을 통해서 드러남을 의미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거룩한 것과 인간적인 것 사이의 가교

이것이 바로 육화

그런데 육은 양가적인 상징이다.

육화의 맥락 안에서 육은 천상의 것에 다다르게 되는 다리 역할

하지만 육화의 맥락 밖에서는 그다지 좋은 것은 아님

이들은 혈통이나 육육(육/사룩스의 뜻)이나  
남자(안트로포스)의 욕망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말씀이 사람(육/사룩스)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1:13-14)

육(사룩스)은 하느님의 피조물을 의미한다.

하지만 말씀이 육이 되시는 순간(육화)

육은 하느님을 가르키는 상징이 된다.

따라서 육은 이중적인 의미가 된다.

썩어 문드러질 피조물이면서 하느님을 경험하는 성사적 존재

## 5. 빛과 어둠

창세기와 요한복음을 이어주는 역할

땅은 아직 **꼴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었는데,  
**어둠**이 심연을 덮고 하나님의 영이 그 물 위를 감돌고 있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하시자 빛이 생겼다.

(창세기 1:2-3)



창세기의 어둠과 빛이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상징이 된다.

9장의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지만 예수님을 알아본 자와  
볼 수 있는 자이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바리사이

즉 빛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 생명

어둠은 불신과 거부, 죽음을 상징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8:12)

상징, 표징, 기적

표징/기적은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신앙에 이르는 길이다.

레이먼드 브라운 같은 학자는 아예 요한복음 전반부를 표징의 책이

라고 부를 정도로 중요한 주제이다.

게다가 앞서 본 9장의 맹인 치유의 기적에서처럼  
요한복음의 기적은 단순한 치유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예수님은 맹인의 시력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 시력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맹인은 육체의 회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회복까지 이루어 신앙인의 표본이 되었다.  
즉 9장의 맹인은 이상적 신앙인의 상징이 된 것이다.  
기적에만 초점을 맞추면 볼 수 없는 부분이다.

## 정리

요한복음에서 상징은 최소한 5개 범주로 나뉜다.

하지만 그 기능은 크게 두가지이다.

1.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하여 비유적으로 알게 해주는 것.

이때에는 육화라는 신학적 맥락을 절대 잊어서는 안된다.

2. 그리고 우리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알게 해주는 것.

그런 점에서 요한복음의 상징은 깨닫고 밝혀주는 역할을 한다.